

2011. 10. 25

일본 전기로산업 재편 동향과 전망

미래전략연구실

이상규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일본 전기로산업 재편 동향과 전망

□ 2011년 5월 JFE의 계열 전기로사 통합 발표를 계기로 일본 전기로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 부상

- 일본 보통강 전기로업체는 37개사가 난립해 과당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동안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
- 재편 요인으로 건설업 침체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철강 수요, 스크랩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 및 대지진, 전력요금 상승 등 돌발 변수도 작용
- 반면 독점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전기로산업의 특성 및 구조적인 문제, 재편에 부정적인 일부 업체 내부의 인식 등은 장애 요인

□ 전기로 재편은 신일철-스미토모의 입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단기간 내 대대적인 재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단기적 파급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고로계 일부 업체 중심의 통합과 상사계 및 일부 독립계 대기업이 가세한 점진적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, 신일철과 스미토모가 통합 이후 고로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대대적인 재편에 나설 가능성도 상존
- 일부 업체의 통합만으로는 설비과잉 문제해소 등 산업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며, 일본산 제품 수입 급증 등 국내 영향성도 크지 않을 전망
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국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
- 한편 재편과 직접 관련성은 적으나 원료인 철스크랩 자원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

□ 국내 전기로산업도 내수 성장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고 수익성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

- 내수 중심의 일본 전기로산업이 해외로 확장될 경우, 국내 전기로업체와의 경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
- 일본을 비롯한 수출국의 철스크랩 자원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확보와 자급도 제고를 위한 국내 철강업체의 노력 필요



I. 일본 전기로산업 재편 움직임 부상.....	1
II. 일본 전기로산업 현황	1
III. 전기로 재편 촉발 요인	3
IV. 재편 장애 요인	5
V. 재편 전망 및 영향	5
VI. 종합 및 시사점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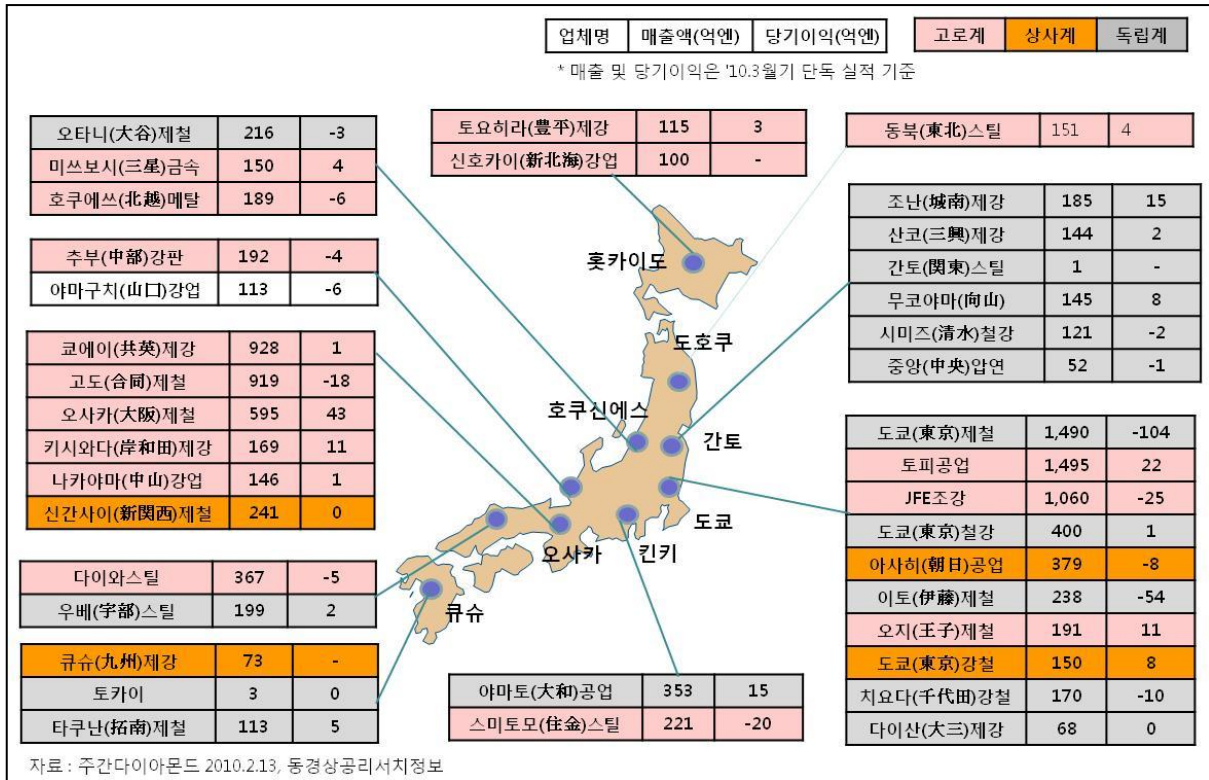
I. 일본 전기로산업 재편 움직임 부상

- 2011년 2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이 통합을 전격 발표하면서 철강산업 전반에 재편 움직임 재부상
 - 양사는 지난 9월 22일, 회사명을 ‘신일철주금(新日鐵住金)’으로 새롭게 정하고, 2012년 10월 1일에 경영 통합을 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을 체결
 -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사 통합에 대한 2차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, 일본 철강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큼
- 한편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기로업계에서도 2011년 5월 JFE가 계열 전기로사의 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편 가능성 증대
 - JFE는 JFE조강, 다이와스틸, 도호쿠스틸, 토요히라제강 등 4개 계열 전기로사를 2012년 4월 합병할 계획
 - 통합 성사 시 합계 조강생산량이 267만 톤(2010년)으로 최대 전기로사인 동경제철(239만 톤)과 비슷한 규모의 업체로 부상할 전망
- 지난 10년간 일본 전기로업계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은 있었으나, 수요 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 대비에는 미흡하여 이번 재편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

II. 일본 전기로산업 현황

- 일본의 보통강 전기로사는 37개사로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, 지분 구조에 따라 고로계, 상사계, 독립계로 구분
 - 고로계 전기로사는 신일철의 합동제철 등 8개사, JFE의 JFE조강 등 4개사, 스미토모의 교에이제강 등 4사 등으로 모두 16개사
 - 상사계는 아사히공업과 동경강철 2개사에는 미쓰이물산이, 신간사이제철과 큐슈제강 2개사에는 메탈윈이 대주주로 참여
 - 독립계는 모두 17개사로 동경제철 등 대형업체도 일부 있으나, 가업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개인소유 업체도 다수 존재

< 일본 보통강 전기로사 분포 >



□ 일본 전기로 조강생산량은 감소 추세로 설비능력 대비 가동률은 50% 수준이며, 다수 업체의 난립으로 생산집중도도 낮은 수준

○ 2010년 전기로 설비능력 4,293만 톤 대비 조강생산량은 2,384만 톤으로 평균 가동률은 56% 수준이며, 보통강 조강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생산집중도는 37%에 불과

< 일본 전기로 수급구조 및 생산집중도 >



□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내수 침체 환경에서 동경철강과 공영제강의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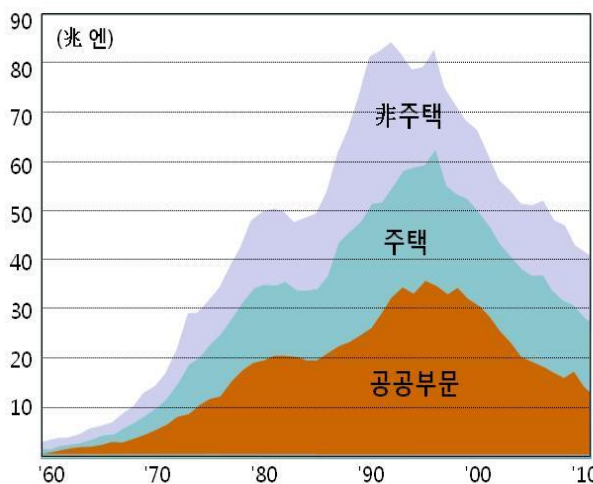
- 통합 심사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문제가 되었으며, 공정 위외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양사는 통합 의사를 철회
- 이후 경제·산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50% 상당의 Safe Harbor¹ 조건 완화, 신속한 심사 등에 대한 요구 증대

Ⅲ. 전기로 재편 촉발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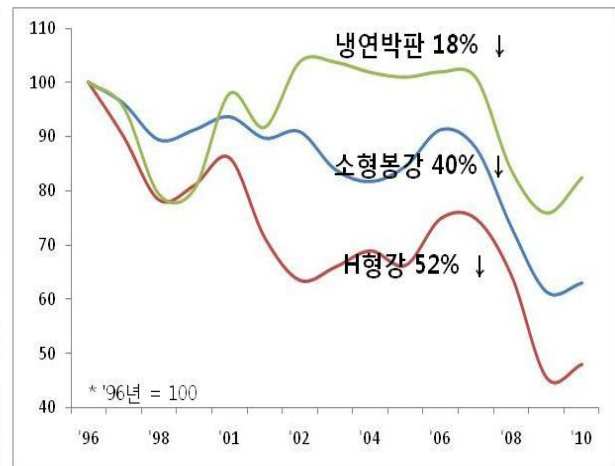
□ 현재 전기로업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주 수요처인 건설산업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의 감소

-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2000년 이후 급감해 지금은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, 일본 인구 역시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
- 전기로 주요 제품인 H형강과 소형봉강 수요는 1990년대 정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해 냉연 등 타 제품과 비교 시 감소세 뚜렷

< 일본 건설투자액 및 주요 철강 제품 내수 출하 추이 >



자료 : 국토교통성, 합동제철 자료에서 재인용



자료 : 일본철강연맹

¹ Safe Harbor: 기업 결합 심사상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

□ 원료 측면에서는 철스크랩이 국제 상품화되면서 가격이 상승, 원가 부담이 높아진 것이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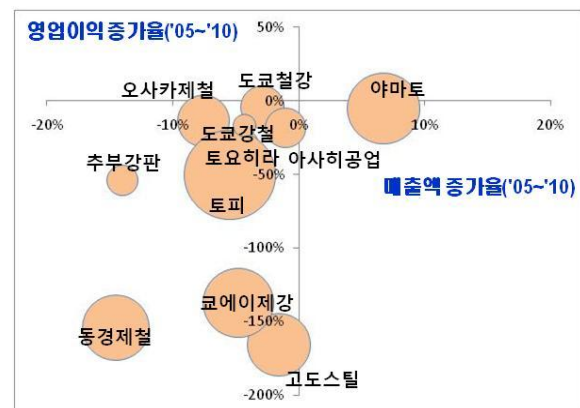
- 철스크랩 가격은 과거 일본 국내 수급에 따라 결정되었으나, 해외 수요 증가로 수출이 급증, 국제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구조로 변화되면서 가격이 상승
- 스크랩 가격 상승 대비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워 수익 악화

< 철스크랩 수입 및 내수가격 변화 >



자료 : 일본철원협회

< 상장 전기로사 성장 및 수익 추이 >



자료 : Thomson One Banker

□ 한편 돌발 변수로 대지진에 따른 전기로사 직접 피해, 전력 가격 상승 문제도 재편을 촉발하는 요인

- JFE계 통합은 JFE조강, 도호쿠스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구비용 대비 장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
 - 향후 지진 피해를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서일본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재편과 연계될 가능성도 존재
-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(FIT)²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도 가중될 전망
 - 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업계 부담 금액은 연 170~240억 엔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기로 업체의 부담은 절반 수준인 85~120억 엔으로 예상
 - 전기로 등 전력 다소비산업에 대한 경감조치도 제도 도입 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 예상

² FIT(Feed in Tariff):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고 매입에 따른 부담 금액은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

IV. 재편 장애 요인

□ 재편을 저해하는 외부 요인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이 관건

- 최근 일본 산업계 전반에서 통합 논의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심사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공정위의 독점금지법 적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
- 그러나 전기로는 내수 중심의 국내 업체간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조건 완화가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

□ 전기로산업의 특징 및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내부적 요인도 장애 요인

- 일본 전기로산업은 고로계, 상사계, 독립계가 혼재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‘지산지소(地產地消)’형 산업 구조
 - 고로 및 상사계는 상호간 지분 출자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
 - 독립계는 대부분 가업형 사업이기 때문에 재편에 무관심
- 고로 대비 조업탄력성이 높은 전기로 특성에 따른 독특한 생존 방식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
 - 호황기에 이익 축적 후, 불황기에 가동률을 줄이면서 다음 상승기를 기다리는 운영 특성상, 일부 업체는 재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
- 그러나 과거 생존 방식이 통하기에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편에 대한 내부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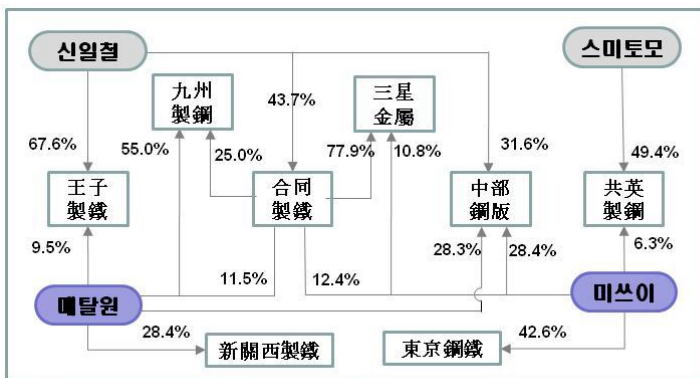
V. 재편 전망 및 영향

□ 향후 일본 전기로 재편 방향은 통합이 진행 중인 신일철과 스미토모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, 일부 상사의 동향 역시 변수가 될 전망

- 신일철과 스미토모는 모두 12개의 계열 전기로사를 보유하고 있어 전기로업계 재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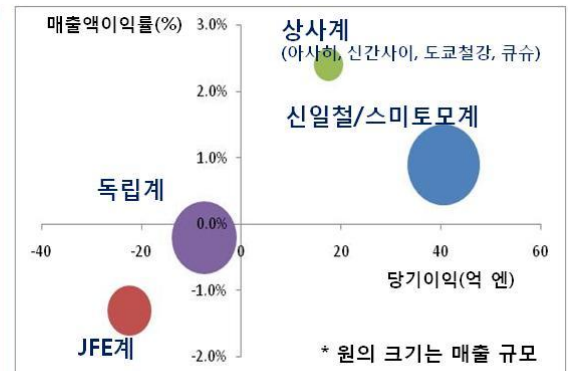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 관점으로는,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품 집약,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
 - 장기적으로는, 신일철-스미토모 통합사와 연계하여 고로사업과 전기로사업 간 Product Mix 조정, 전기로의 친환경성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대응 방안 활용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 예상
- 기본적으로 업계 재편에 찬성 입장인 상사는 전기로 사업에 있어서 다른 계열보다 수익성이 양호하고, 고로계 전기로사와 지분관계가 있어 재편에 있어서 행보가 주목됨
- 상사는 독립계 업체들에 대한 지분도 상당수 가지고 있어 저수익 업체에 대한 지분 정리와 함께 사업 강화를 위한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전망

< 고로·상사계 주요 업체 지분관계 >



자료: 동경상공리서치정보

< 전기로 계열별 비교(FY10) >



□ 종합적으로 볼 때, 단기간 내 대대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

- 복잡한 산업 구조 및 신일철-스미토모 간 통합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, 전기로 재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이 아직 부족한 점 등 감안
- 우선 고로계 일부 핵심 업체를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고, 상사계 또는 일부 독립계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재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,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될 전망

- 그러나 신일철과 스미토모가 통합 이후 고로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대대적인 통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재편의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

□ 점진적 재편이 진행될 경우, 단기적으로 재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
- 현재 설비능력 2백만 톤 이상 업체는 동경제철 등 3개사에 불과해 소수 업체 통합만으로 설비과잉 문제해소 등 전체 산업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
- 국내 전기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일본 대비 우위로 국내 수입 급증 등의 영향성도 크지 않을 전망

□ 장기적으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국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 존재

- 아직까지 전기로사의 봉형강제품 수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며, 해외 거점을 가진 업체도 공영제강, 야마토스틸 등 소수 업체에 국한
 - 2010년 수출 비율은 형강 18%, 봉강 5%로 전체 조강기준 수출 비율 43% 대비 저수준
- 최근 주요 업체들은 중기계획 등에서 수출 및 해외 사업 비중 강화 의사를 표명
 - 향후에도 내수 축소 불가피로 수출 및 해외 진출에 의한 성장을 지향할 전망

〈 주요 전기로사의 해외시장 강화 동향 〉

해외사업 강화형	• 공영제강(스미토모계): 베트남 등 동남아 거점 강화 • 야마토스틸(독립계):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, 바레인 등 중동 지역 거점 강화 • 오사카스틸(신일철계): 동남아 중심으로 현지사와 제휴 강화 추진
수출 강화형	• 합동제철(신일철계): 수출영업부 신설(2010) 등 수출 체제 강화 • 동경강철(상사계):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빌렛 수출 강화 계획

□ 재편과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스크랩 자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스크랩 수급에 영향 가능성도 존재

- 전기로 업체들은 최근 자원 리사이클 측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, 부가가치가 낮은 스크랩 수출을 줄이고 빌렛 수출을 확대하면서 가동률을 높이자는 주장도 대두

- 메탈원이 스크랩 집하망 강화, 공급거점 증설 등 취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일본 상사들은 최근 스크랩 관련 사업을 강화

○

V. 종합 및 시사점

- 꾸준히 제기된 일본 전기로산업 재편 문제가 JFE 계열사 통합을 계기로 재부상하고 있으나, 단기간에 대대적인 재편보다는 점진적 재편 가능성이 클 전망
 - 이 경우 철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일본보다는 양호하나 국내 전기로산업도 내수 성장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수익성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
 - 내수 중심의 일본 전기로산업이 신흥국 중심의 해외시장으로 확장될 경우 예상되는 국내 업체와의 경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에 있어서는 일본의 스크랩 자원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
 - 일본산 스크랩은 우리나라 수입량의 45%를 차지(2010년)
 - 일본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의 자원화 움직임에 대비해 철스크랩의 안정적 확보와 자급도 제고를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필요

이상규 (e-mail: leesk92@posri.re.kr)

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